

대한간호 續刊에 대한 小考

(1953年을 전후하여)

洪 英 淑 (본회 제1부회장)

먼저 대한간호의 오늘의 100號出刊을 祝賀합니다.

大韓看護協會 出版部로부터 이 100號 發刊에 즈음하여 1950年代 前後에 있어서의 대한간호의 발자취에 대한 原稿講託을 받고 會誌를 아껴온 나로서는 拒絶할 수 없어 쓰기로 하였으나 到底히 記憶으로는 더듬을 수가 없고 冊字(參考文獻)를 求하지 못하여 좁게 續刊 1號를 中心으로 寄稿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선 諒解로 求합니다.

1953年 7월에 發行된 대한간호 續刊 1號는 白色바탕에 綠色올타리로 題字가 白色으로 表記되어 있고 當時에 崔在裕保健部長官(현재의 保健社會部)으로부터 看護事業에 功學가 크신 李貞愛 2代會長, 李金田 4, 5代會長, 金正鮮 前慶北支部長 崔月南 前全南支部長, 元利吉 前國立警察病院看護員長 諸先輩와 그리고 當時 金溫順會長立席下에 表彰狀이 授與되는 記念寫眞은 三面度色 綠色으로 걸드린 지금과 같은 四六倍版의 表紙, 63페이지에 달하고, 發行地는 釜山에서 發行部數는 1,000部, 編輯을 手若하여 주신분은 當時 洪玉順教育部長 값은 70圓(이 價格은 會員 賃費란 有價誌였으며 이때에 看護員免許 手數料가 30圓이고 助産員免許稅가 1,000圓이었으니 값이 싸고 비싸고는 各者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續刊1號의 外形입니다. 이 會誌가 나오기까지는 祖國의 運命과 같이 많은 于餘曲折의 事緣들이 肉屯되어 있습니다.

當時를 回顧하던 解放과 더불어 完全 獨立이 될 줄만 알았던 우리 祖國은 美蘇 兩國에 依한 分斷 點額으로 民族悲劇의 38線을 가로막고 軍政時代로 들어간 것입니다. 初期에는 美·英·蘇 3相會議에서 信託統治가 結定되자 共產黨의 支

持트 말미아마 우리나라는 一次激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읍니다.

共產黨과의 對立이 激化되고 이들의 殘忍無道한 良民大屠虐殺을 자행했던 1948年 10月 慶水 順川反亂 事件을 惹起하고 드디어 1950年 6.25 動亂까지 일으키고 南侵을 하자 우리는 不得已 作戰上 後退로 南下 避難하기에 이르렀읍니다.

6.25는 우리 삶의 連續性을 斷切시켰으나 兇惡의인 總擊을 가함으로써 비약을 위해 우리의 慾求를 直接間接으로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주어 釜山에서 이 대한간호가 協會 事務室도 없으면서 轉轉, 이病院 分院院의 看護員長室에서 感激을 가득히 안은채 發刊 되었던 것입니다. 當時 金溫順會長께서 續刊辨에서 強辯하신바와 같이 대한간호 誌의 發刊 目的은 첫째, 一般看護員 自身の 修養을 增進시키고 둘째, 看護事業과 一般社會와의 關聯性을 密接히 結合시키고 셋째, 世界國際間의 醫療 및 看護智識을 滋養시키기 爲한을 目的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勿論 이 目的과 使命은 四半世紀가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變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2當幸 在 韓의 光復과 더불어 우리나라 看護事業은 日帝의 植民政策的 看護에서 벗어나 民族奉仕의 看護기틀을 마련하기 爲한 努力이 막 태동하기 始作하는 때였으며 國際看護協議會加入을 비롯하여 國內外的으로 우리나라 看護協會의 存在가 浮刻하기 始作하는 때였읍니다. 또한 6.25動亂으로 因한 前後方 將兵들의 負傷者看護와 戰後 疾病看護를 爲한 看護需要가 愈増하는 때이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社會的으로 看護事業에 對한 一般的 理解와 認識은 「輕視와 無關心」이라고 端的으로

대한간호의 발자취와 전망

평할 수 있을 程度로서 투철한 奉仕精神과 信念이 없는 女性으로서 看護界에 投身하기 어려웠음을 想起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資格看護員의 數가 極히 적었으며 또한 技術과 資質面에서도 자연 貧弱性을 免치 못하였던 것도 事實이었습니다.

이와같은 看護界의 背景과 새로운 時代的 看護需要에 副應하여 看護員의 資質向上과 社會的인 理解增進 그리고 奉仕精神의 鼓吹를 爲한 燈臺로서 本 대한간호 誌 속간 1號가 더욱 意義있고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1953年 7月. 續刊 1號의 편집내용을 보면 그 當時 우리나라 看護界가 當面하고 있었던 現象과 問題點들을 역역하게 回想할 수 있습니다. 이 中에서 特히 當時 세브란스간호학교장 在任하셨던 “아더센들”의 「대한의 간호원 여러분에게」와 유엔 간호원 대표 켈슨소령의 「激勵의 말씀」 그리고 洪玉順 先輩의 「우리의 당면한 문제」의 글귀에서 그 當時 우리 看護事業의 微弱한 實態와 看護員에 對한 醫療界에서의 物心的인 待遇 및 看護員 自身의 未洽한 諸要素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狀況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韓國看護事業이 進取해야 할 目標를 設定하고 看護員 스스로의 尊嚴과 認定받기를 爲한 看護敎育과 資質向上 問題 等に 焦點을 두고 이에 對한 方向을 提示하고 이를 試圖하였음을 볼때 國家의 社會的으로 不安定(動亂後)한 狀況에서도 우리 看護界에서는 發展을 爲한 基盤造成의 始動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要約하여, 말씀드리다면 看護界의 「自己發見」 「自己發展」의 初期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그 當時를 比較할때 우리 看護事業은 量的으로 擴大하고 的質으로 發展 變化한 것은 事實이라 하겠으나 그때 提示되었던 모든 問題들이 過然 얼마나 成就되었으며 또 이를 爲하여

얼마나 努力해 왔는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當時 看護員 스스로를 채찍질 하면서 自己發展을 促求하기 爲하여 續刊 1號에 收錄되었던 警句 몇 개를 추려 紹介하면서 요즈음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看護事業은 있으나 看護員은 없다는 脆弱點을 生覺하고 옛 先輩任들이 부르짖었던 看護精神을 吟味하고자 합니다.

「너는 간호원이다.

약한이 병든이 어린이 노인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봉사한다.

그러나 힘으로 너를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어대까지나 대항한다.

돕기는 하여도 싫은것을 억지로 따르지는 아니한다」

「너는 간호원이다.

세상은 날로 변한다. 너도 오늘의 사람이다.

새 세계에 새 사람은 새 지식을 가져야 한다.」

「너는 간호원이다.

시간은 모든것을 물어 감추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낸다.

지혜있는 사람은 잘 할 것은 물어 두어도 못한 것은 감추지 아니한다.

너는 지혜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간호원이다.

올땀이 같이 밝은 눈을 가지고 개미같이 부지런하여라. 알고는 질질 속아도 모르고 속는 멍텅이는 되지마라.」

「너는 간호원이다.

네 몸은 튼튼한가?

네 몸을 튼튼히 하는 법은 아는가?

남의 몸 돌볼줄을 알면 제 몸 돌볼줄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